

## “제2의 삶, 마을을 위해 일하고 있어요”

### 일산3동 주민자치회 윤기남 회장

교직에만 40년을 머물렀다. 퇴직하고 해외여행도 마음껏 다니며 여유를 만끽했지만, 이내 무료해졌다. 그러다 ‘내가 사는 일산3동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는 생각으로 조금씩 마을 일을 하다 보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까지 하게 되었다. 최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마을을 위한 일에 골몰하느라 그의 마음은 더욱 바빠졌다.

글: 공주영(편집부) 사진: 조병우



일산3동 주민자치회 브랜드로고 디자인 확정을 위한 주민투표

### 마을 안 청소년을 위해 시작한 어머니방법대

2015년 2월 퇴직 이후, 그는 ‘우리 마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고 마음먹었다.

“40년을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저에게 쌓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둘러보던 중 아이들을 떠올렸어요. 일산3동은 교육 문화마을이라 칭할 만큼 학원이 정말 많아요. 공부를 마치고 오가는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로 ‘어머니방법대를 시작했어요’”

청소년들이 학원을 마칠 무렵이 되면, 주변은 컴컴해졌다. 어두운 골목에 모여 있는 아이들도 자주 보였다. 두 아이를 키운 어머니로도 그렇지만 학교에 오래 몸담은 선생님의 마음으로도 그런 모습이 그냥 지나쳐지지 않았다.

2015년 9월부터 윤기남 회장은 어머니방법대로 열심히 활동했다. 점차 어두운 골목에 머무는 아이들의 수가 적어지고 마을이 안정적으로 변하는 게 보였다.

### 교직 생활의 경험, 마을에 보탬 되는 일로 녹아내다

어머니방법대로 활동하면서 방위협의회 회장직도 2년 가까이 했다. 뭐든 하면 열심히 하는 터라 자치위원회 활동을 한지 1년여 만에 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 어쩔 수 없이 감투를 썼는데, 막상 하고 보니 자신에게 더 즐거운 일이었다.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실버 코너는 큰 글씨로 표기합니다.

“교직 생활을 하면서도 교무부장, 교감, 교장을 거치면서 서류를 꾸리거나 행정 일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저에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매일 아침 출근해서 여러 사이트를 뒤지며 마을에 보탬이 되는 사업이 없나 찾아보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신청을 했죠. 그렇게 해서 공모 사업도 많이 수주해냈고요”

2020년 9월, 경기도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선정돼 일산3동 행정복지센터 3층을 교육 커뮤니티 공간인 후곡마을로 리모델링했다. 또한, 고양시마을공동체에서 지원받아 어르신들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문해교실을 열기도 했다. 그 외 2021년에 추진한 소통대동 공동체, 후곡소리단도 윤기남 위원장이 앞장서서 즐겁게 해낸 마을 활동이다. 이런 노력으로 일산3동 주민자치위원회는 2020년 고양시장 표창장과 2021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주민조직네트워크 분야장려상을 받았다.

### 주민자치회,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사명감으로

2021년 10월 8일, 고양시 39개 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주요 역할이 자문과 심의였다면, 주민자치회는 현안에 대한 결정권이 확대된다.

“권한이 더 부여된 만큼 책임감도 커졌어요. 세척을 정하거나 분과를 구성하는 등 할 일이 많아졌고요. 우리 마을을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사명감으로 올해도 열심히 해야지요”

얼마 전, 주민자치회에서는 후곡교육문화축제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 같이 돌아 동네 한 바퀴’, ‘온라인 건강 강좌’ 등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구성했다. 후동공원에 큰 스크린을 설치하고 동영상을 띄워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게 했더니 비대면임에도 마을 축제 느낌이 더해졌다. 덕분에 ‘참신한 아이디어 덕분에 즐거웠다’는 주민 전화도 많이 받았다. 이런 소통이 오가는 것도 고마운 일이다. ‘살기 좋고 사람 좋은 일산3동’. 윤기남 회장은 마을에 대한 애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 애정으로 앞으로 주민자치회 활동을 더 활기차고 행복하게 해낼 것 같다. 